

17개 시·도 13개 부처 광주서 “대한민국 희망스토리 만들자”

오늘 ‘지역희망박람회’ 개막... 지역발전정책 성공사례 등 공유
로버트 할리 등 토크콘서트도... 5·6일 DJ센터 ‘일자리 박람회’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발전 종합행사인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관련기사 5면> 지역희망박람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로, 2004년 이후 매년 지역별로 순환 개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해 부산에서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

여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상을 그려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특히 정부 부처와 각 시·도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지역발전의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27개의 콘퍼런스, 지역 현장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사례 발표회, 구직자와 지역 우수기업들을 이어주는 일자리 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전시장 내 특별무대에서는 로버트 할리(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공병호(공

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양준혁(아구해설가), 김태원(가수), 이해정(요리연구가), 손미나(여행작가) 등 유명인사 8명이 참가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2014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희망박람회 홈페이지(www.happyregion.kr)를 참고하거나 지역희망박람회 사무국(02-6009-37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역희망박람회와 연계해 5~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014 광주지역희망 일자리 박

람회’를 연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300여개의 지역 우수 중견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00개 기업은 현장면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참여 기업들도 게시판과 온라인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인력을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주)호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스디엔(주), 광통신분야 강소기업인 포미 등이 참여해 현장 채용 및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도시공사와 환경공단 등 시 산하 공사·공단에

서는 향후 채용계획과 정보 등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취업희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을 원하는 취업자는 홈페이지(2014gwangjujob.co.kr)에서 등록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참가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작성한 신청서,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해 원하는 기업체에 제출하면 면접이 가능하다. 허익배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맞춤형 취업컨텐츠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 도심에 ‘맹꽁이 소리’

환경기술원, 서식처 복원... 내년 6월까지 30마리 이주

앞으로 목포 도심에서도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최적 서식처 복원 기술을 개발해 최근 목포 도심에 서식처를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 적용된 현장은 목포시 산정동 아파트 단지 인근의 1만 3034㎡ 부지로, HSI를 적용해 산란지·온신지·동면지로 구성된 맹꽁이 서식지가 완성됐다. 기술원은 내년 6월까지 맹꽁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맹꽁이 30여 마리를 산정동 서식지로 이주시킬 예정이다. 맹꽁이의 최적 서식처를 복원에 도시 지역에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복원 기술은 ▲맹꽁이의 최적 서식처에 대한 적합성지수(HSI) ▲서식처 최적

복원모델 ▲인공증식 및 현지적응 관찰 기법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HSI란 특정 종(種)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의 조건을 수치화한 지표다. 예컨대 맹꽁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서식처로 산란지 고도 400m 이하, 온신처 흙 깊이 20cm 이상, 물 깊이 10~50cm, 수질 수소이온농도(pH) 5.8~7.5 등 조건이 맹꽁이의 HSI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개발할 때 수치화 없이 진행됐지만, HSI 개발로 최적 서식지 조건을 계량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기술원은 설명했다. 김영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여름철 도심에서도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목포 서산·온금 토지 허가구역 재지정

2018년까지 주거 환경개선·도시 재정비

전남도가 2일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인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8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8년 개발 완료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 방식은 거주민이 주택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고, 목포시에서는 도로 등 공

공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1구역(온금)은 지난 2013년 9월 거주민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해제돼 개발사업에 편승한 투기세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2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문을 연 한국전력거래소 신청사 개청식이 2일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 제공>

전력거래소, 빛가람도시 첫 출발

신청사 개청식

한국전력거래소가 2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서울 서초 청사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해 지난 10월 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4만4000㎡ 부지에 건축면적 2만8000㎡, 지상 9층 규모로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혁신도시 입주기관장,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전을 선두로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 KPS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이 이전해올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가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는 한편, 광주·전

남지역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공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전남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90만2916명으로 전월 대비 592명 증가했다. 전남 인구는 2012년 12월 말 190만9618명, 2013년 12월 190만 7172명, 2014년 9월 190만2350명 등 꾸준히 줄어들다 한편 등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해오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남과 비교해 나주가 가장 많은 549명이 늘었고 이어 장흥(277명), 광양(187명), 무안(113명) 순이었다. 인구가 감소한 시군은 신안(112명), 화순(106명), 강진(90명), 담양(72명) 등이다. 정순주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인구 200만 회복을 위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무안공항을 16만명 이용

중 청두·난창 등 신규 유치 효과... 2007년 개항이후 최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15만83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용객(13만2632명)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가장 많은 이용객이 무안공항을 찾았다. 전남도가 중국 관광객 공략에 나서 올해 중국 청두, 우한, 난창 등 신규 노선을 유치한 것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 제주, 상해, 북경 3개 정기노선과 심양, 정주, 천진 3개 정기성 전세기, 오사카, 마카오, 타이베이, 키타큐슈 등 16개 부정기 노선의 이용객도 늘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한 협력과제로 선정하고, 광주·전남 무안공항 전세기 운항사업자 공동 지원 및 항공사 손실액 재정 지원 등의 정

책도 효과가 컸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티웨이 항공이 무안~제주 노선을 매일 1회 운항하고 있다. 지난 2월 환승관광공항으로 지정돼 1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중국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공항 이용객의 편리 증진 및 외국인들의 전남에 대한 이미지 개선, 원활한 출입국관리를 통한 공항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설치를 안전행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위관한 전남도 건설발전재육장은 “도내 유명 관광지과 연계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 · 無출혈 · 無봉합 · 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신용대출, 상가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